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설특집 '열린음악회' 신승훈 단독콘서트로

올해로 데뷔 20주년을 맞은 신승훈이 KBS 1TV '열린음악회'를 통해 단독 콘서트를 선보인다.

설 특집으로 2월 14일 방송될 '열린음악회'에서 그는 이 프로그램 사상 처음으로 60여분간 단독 콘서트 형식의 공연을 펼친다.

신승훈은 지난 16일 녹화에서 자신의 브랜드 공연인 '더 신승훈 쇼'의 하이라이트를 선보였으며, 20년간의 히트곡과 함께 지난해 발표한 미니음반 '러브 어 클락'의 신곡까지 연이어 불렀다.

이날 공연에는 절친한 후배인 싸이와 김태우, 소녀시대 서현이 게스트로 참여했다. /연합뉴스

"9시 뉴스가 경쟁 프로그램 큰 사건 없길 매일 소망하죠"

"촬영하다 새벽에 졸고 있으면 아역 연기자들이 안쓰러워하고 제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하겠다고 나서요."

SBS 월화극 '별을 따다줘'에서 '억척 언니' 진빨강 역을 맡아 거친 연기를 소화해내는 최정원은 맡은 캐릭터에 푹 빠져 있었다.

19일 경기도 일산 SBS에서 열린 '별을 따다줘'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빡빡한 일정 때문에 쉬는 날 없이 녹화를 진행하지만, 아역 연기자들 덕분에 힘이 난다고 말했다.

'별을 따다 줘' 억척 언니 최 정 원

"아이들 순수한 모습 보며 눈물 뚝뚝 철없는 '된장녀'가 진짜 맏딸 됐어요"

그는 "다른 드라마에서는 볼 수 없는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이 드라마에서 느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이는 계속 업고 연기해야 하니 특히 애착이 간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이가 '별을 따다 달라'는 의미로 '별…'이라고 말하는 장면을 촬영하면서는 저절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며 "정말 내 동생이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촬영 당시를 회상했다.

사실 최정원은 집에서도 장녀로 자라온 터라 늘 동생을 챙겨왔다. 그런데도 그는 드라마 속 진빨강을 연기하며 "진짜 피붙이 동생들도 아니고 입양된 동생들인데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다"고 말했다.

극 중에서 진빨강은 원래 한도를 초과할 때까지 신용카드를 긁는 '된장녀'였지만, 사고로 부모를 잃은 이후 동생들을 책임지는 진짜 맏딸이 된다.

최정원은 "계기를 통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역할을 맡고 싶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무척 재미있었다"며 "이 드라마에는 특별히 욕심 나는 장면도 많아서 한 장면 한 장면을 집중하고 긴장한 상태에서 찍고 있다"고 연기 욕심을 보였다.

힘든 촬영 덕분에 '얼굴 시계'라는 별명도 생겼다. 동료 연기자인 신동욱이 '얼굴을 보면 시간을 짐작하겠다'며 붙여준 것인데, 최정원은 "새벽 3시가 되면 내가 3시처럼 보인다고들 한다"며 "자신도 그 별명에 정말 공감한다"고 말해 빡빡한 촬영 스케줄을 짐작하게 했다.

촬영 장면도 쉽지 않다. 회사에서 '석고대죄'하는 장면처럼 체력 소모가 많은 부분도 있고, 힘들여 노래를 불러야 하는 룸살롱 신도 있다.

그는 촬영에 좀더 힘을 내려고 두유 음료나 블루베리 등을 비롯해 초콜릿과 사과즙 등도 챙겨 먹는 등 건강식을 통한 체력 관리도 빈틈없이 하고 있다. 그는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자는 상황에서도 피부는 망가지지 않아 다행"이라며 웃었다.

오후 9시대에 방송하는 '별을 따다줘'의 경쟁상대는 다름 아닌 메인 뉴스 프로그램이다. 최정원은 그 때문에 "요즘에는 사건 · 사고가 없기를 매일 소망한다"며 "아무 사건 · 사고도 없고 눈도 안 오는 날들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추노' '수상한 삼형제' 동시 출연 윤 주 희

"현대와 고전 넘나들며 연기내공 쌓고 있어요"

"동시에 시청률 높은 두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으니 행운이죠. 올해는 일이 잘될 것 같아요."

윤주희(25)는 이렇게 말하며 싱긋 웃었다.

그는 시청률 40%를 돌파한 KBS 2TV 주말극 '수상한 삼형제'에서 똑 부러지는 검사 이태백 역을, 시청률 30%를 돌파한 KBS 2TV 수목극 '추노'에서는 쌍과부집 주막의 작은 주모 역을 맡고 있다.

작은 역이라도 '큰물'에서 놀면 잘 보이는 법. 그는 비록 큰 역은 아니지만, 시청률 높은 두 드라마에서 모두 개성 있는 역할을 맡아 최근 얼굴을 널리 알리는 중이다.

두 드라마 중 먼저 촬영을 시작한 것은 '추노'다. 그런데 방송은 '수상한 삼형제'가 먼저 시작해, 똑 소리 나는 이태백의 모습을 본 시청자들 눈에는 '추노'의 어수룩하고 맹한 작은 주모가 같은 배우로 보이지 않는 듯하다.

"두 캐릭터가 같은 배우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물론 캐릭터가 다르니 전혀 다르게 봐주시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윤주희라는 배우가 연기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웃음)"

'수상한 삼형제'의 이태백은 김이상(이준혁 분) 경감을 지휘하는 당찬 여자 검사이자, 김이상과 주어영(오지은) 사이에 들어가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인물이다.

"문영남 작가님이 '똑 부러지게 연기하라'고 주문하셨어요. 남자 경찰들에게 주눅 들지 않는 강한 캐릭터죠. 동시에 이상과 어영 사이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인물이라 매우 흥미로운 캐릭터예요. 다만, 왜 이름이 '이태백'인지는 모르겠어요. 기다리면 작가님이 이름에 대해 설명해 주실 거라 믿어요."

이태백이 현대 엘리트 여성을 상징한다면, '추노'의 작은 주모는 조선시대 어수룩한 하층민 여성을 대변한다. 그는 '큰 주모' 역의 조미령과 함께 최장군(한정수 분)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매회 온갖 야양을 떠는 코믹한 연기를 펼친다.

"작은 주모는 백치미가 있는 귀여운 여자예요. 세상 물정 전혀 모르고, 큰 주모가 자기와 똑같이 최장군을 연모한다는 것조차 모르죠.(웃음) 이태백은 잘 웃지도 않고 좀 딱딱하게 연기해야 하는데, 작은 주모는 코믹하니까 현장에서도 웃음이 많이 터져 나와요."

그는 "실제로 작은 주모처럼 '추노' 촬영장에 가면 남자 배우들 보는 재미에 흐뭇해진다. 근육질 남성들이 왔다갔다하고 시도 때도 없이 운동을 하고 있다"며 웃었다.

키 170㎝에 가녀린 몸매인 그는 어린 시절부터 모델을 꿈꾸다 2005년 음악채널 엠넷의 '연예와이드'를 8개월간 진행하며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후 '미우나 고우나', '물병자리', '전설의 고향' 등 드라마에 출연했다. /연합뉴스